우마무스메에 쓴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치 우마무스메로 점철된 사진첩.





평가점 14,630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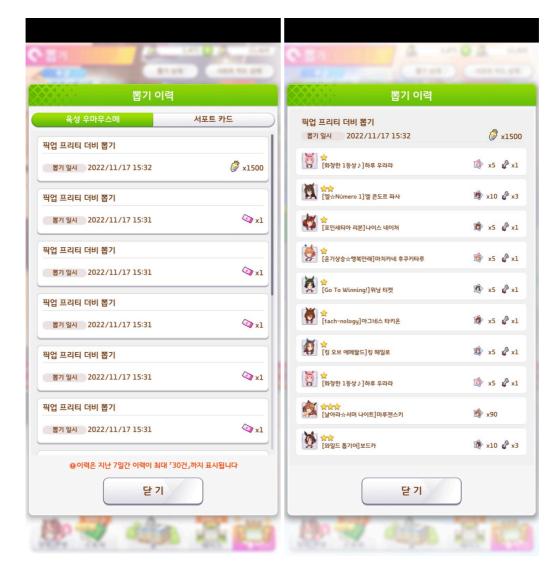
세 번째 S 랭크 육성.

지능 훈련으로 최대한 휴식을 피하고, 모든 능력치를 골고투 키우기보다는 두세 개 능력치 1200점을 노리는 것이 포인트.

물론 이 밖에도 서포트 카드 등급과 상한 해방 정도, 인자 등 평가점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많다.

모를 때는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었는데, 확실히 이 게임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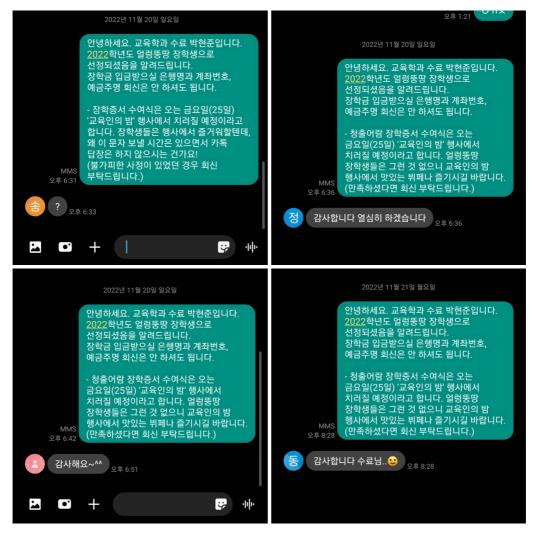
수투젠 픽업이 있었는데, 운 좋게도 10연차 두 번 만에 두 캐릭터 전부 획득했다.

내 블로그라서 당당히 할 수 있는 비틱질.

참고로 비틱/비틱질은 보통 게임에서 기만 또는 자랑을 하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남들이 힘들게 얻거나 얻지 못한 재화나 서비스를 자랑하는 것이 다든 이들에게 고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통 커뮤니티에서 비틱이 심한 유저의 경우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오마니께서 사 오신 굴. 초고추장에 고추까지 얹어 맛있게 잘 먹었다.



학과에서 장학생 선정이 있었던 것 같길래, 장학생 선정 문자를 따라 해 장학증서를 받지 못한 학과 사람들에게 얼렁 뚱땅 장학생 선정 문자를 보내봤다.

본인에게도 보내달라는 무수한 요청이 쏟아졌다.

언젠가는 정말 내가 후배들에게 이런 장학금을 줄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행사 자리에서 전체 학생 중 랜덤 N 명 선정하여 즉석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가챠 장학, 꼴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리버스 장학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